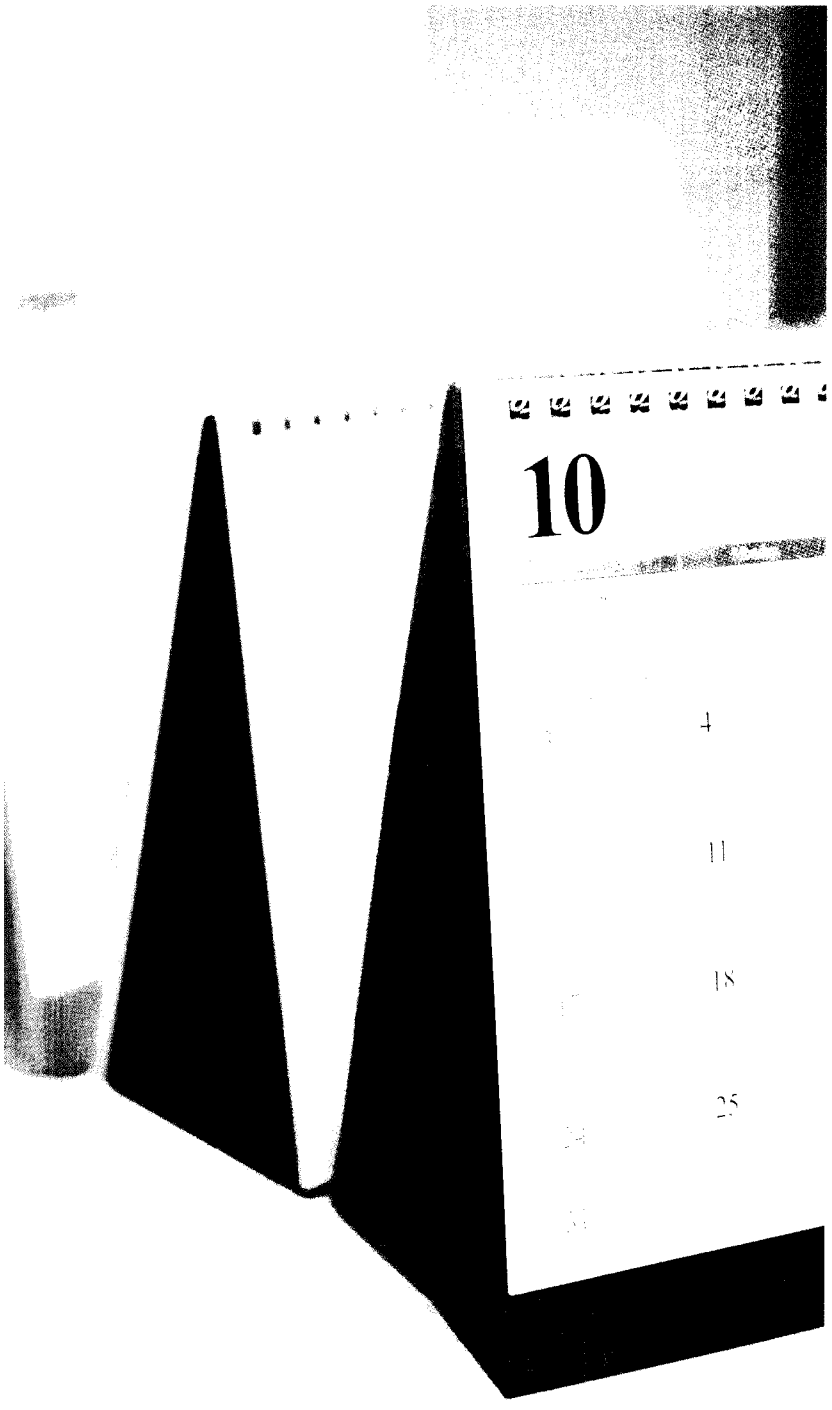
끊임없이 변화하는 캘린더

캘린더는 계획을 세우거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다. 특히 탁상캘린더의 경우, 간단한 메모를 적어두어 약속이나 기념일 등을 잊지 않게 해준다. 또한,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그래서 색다른 디자인이나 기능이 추가된 특별한 캘린더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기고 | 정시오 애플카렌다 대표



캘린더 시장의 현재

캘린더업계는 지금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갖고 싶은 캘린더를 만들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 해답은 바로 '지속적으로 캘린더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캘린더 회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제품홍보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스마트폰 유저(user)가 늘면서 스마트폰으로 캘린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캘린더 업계는 조금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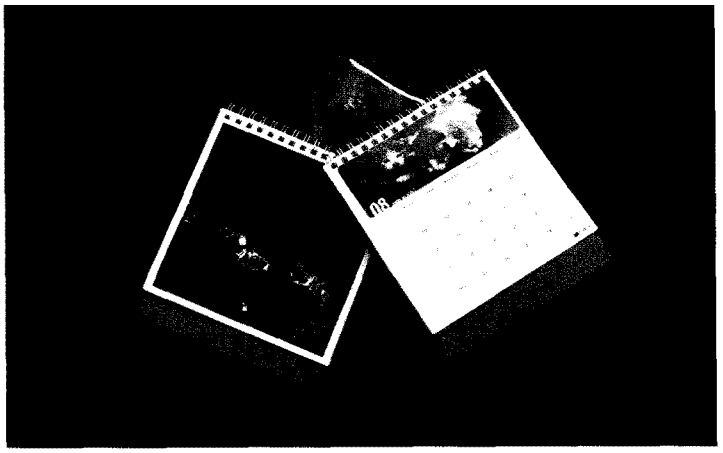
이러한 위기감속에서 다른 콘텐츠에 캘린더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스타일의 캘린더를 창조하는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는 만큼, 캘린더도 그에 맞게 다양하고 세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캘린더 회사는 타사와 차별되는 특별한 색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 특히, 개인화되는 시장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상품 개발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객의 마음을 읽고, 끊임없는 디자인과 기술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캘린더는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홍보의 진화

매력있는 캘린더라 하더라도 고객이 알지 못하면 판매될 수 없다. 그래서 처음 캘린더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캘린더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DM(Direct Mail)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홍보를 하게 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도 홍보의 창으로 활용된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온라인 인맥구축'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



개인화 인쇄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캘린더

한다. SNS는 새로운 홍보방법이자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SNS는 그 파급효과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캘린더를 구매하고자 하는 타깃(Target)을 포함해 그 노출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탁상캘린더 · 독판캘린더 인기

벽걸이 캘린더보다 탁상 캘린더를 찾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한, 캘린더 제작이 대량생산에서 소량생산 위주로 변해가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의 맞춤형 캘린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맞춤형 캘린더를 '독판 캘린더'라 하는데, 사진, 디자인, 크기, 종이 재질 등 모든 것이 변경 가능하다. 독판캘린더는 크게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A타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캘린더의 크기, 형태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타입의 독판 캘린더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캘린더는 주로 기업의 고객에게 제공해 기업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

B타입의 경우 애플캘린더의 기존 디자인을 선택하여 이미지, 로고 등을 교체, 삽입하여 만드는 것이다. B타입은 사진과 로고 등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A타입보다 더 빨리 제작할 수 있다.

단가 낮은 디지털 인쇄기 필요

디지털 인쇄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 중 가격적인 측면이 큰데, 이런 단점을 채워 단가를 낮출 신형디지털 인쇄기가 나온다면 디지털 인쇄시장의 판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캘린더를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과정의 거품이 없어 가격이 저렴하다. 디자인 역시 전문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디자인과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캘린더부터 귀엽고 아기자기한 캘린더까지 다양한 종류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앞서 가는 캘린더 '애플카렌다'

애플카렌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2012년 캘린더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채웠다. 우수한 동화작가들과도 연계하여 그들의 작품으로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캘린더를 만들었다. 또한, 다양한 종이 재질을 사용해 더욱 감각 있는 캘린더를 만들고자 한다.

애플카렌다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삼각대도 신경을 써서 고른다. 캘린더의 디자인과 색이 맞는 삼각대 색을 찾아 한층 더 좋은 캘린더를 만들고자 한다. 서울에서 공수한 다양한 색상의 삼각대를 사용해 차별화를 둔 것이다.

애플카렌다에서 주력하는 상품은 치과 캘린더와 일러스트 캘린더다. 치과 캘린더는 치아관련 정보와 감각 있는 그림을 함께 담아 심플한 느낌을 추구한다. 치과의 이미지와 잘 맞으면서도, 환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다. 일러스트 캘린더는 유치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귀엽고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꾸몄다. 아이들이 캘린더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 있어 아이들 인성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애플카렌다는 꾸준히 사랑을 받는 캘린더회사가 되기위해 매년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되 가격은 저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애플카렌다 뿐만 아니라 캘린더 업체들은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이어리처럼, 선물하거나 소장하기에 좋은 캘린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